

6/21/15

설교 제목: 뜻을 정하여 살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다니엘 1:1-20

- (단 1: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 (단 1: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 (단 1: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절관주** 왕하 24:14, 사 39:7
- (단 1:4)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절관주** 삼하 14:25, 사 36:11, 단 2:4
- (단 1:5)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절관주** 왕상 4:22, 삼상 16:22
- (단 1:6)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 (단 1: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 (단 1: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절관주** 창 39:21, 시 106:46, 잠 16:7
- (단 1: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 (단 1:11)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 (단 1: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절관주** 살전 5:21
- (단 1: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단 1:14)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단 1: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절관주** 잠 23:3
 (단 1:16)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절관주** 단 1:8
 (단 1: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단 1:18)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단 1: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단 1: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5, 6 월이 졸업 시즌입니다.

대학교와 대학원들은 5 월에 졸업식을 하고 고등학교들은 6 월에 졸업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David 과 Katelyn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저는 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지 모릅니다.

비록 이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 주는 소위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제
 눈에는 세상 어느 누구 보다는도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느덧 쑥 자란 키도 멋있고 어쩌다 싱긋이 웃어 주면 그 싱그러운 모습에 반해 버립니다.

목소리도 생김새도 점점 남자같이 또 여자같이 변해가는 이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 밥
 안먹어도 배 부르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애잔할까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책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귀하지만 특별히
 제게 이들이 더 귀중한 것은 David 은 제 아들이고, Katelyn 은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창립 멤버로서 학교 행사 등으로 여행을 가든지하여 불가피 할 경우가 아니면 한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함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가까이에서 그들이 그동안 겪어온 성장통과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는 모습을 숨죽이고 지켜 보았기 때문입니다.

Katelyn 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3 년전 학원에 엄마와 함께 SAT 를 공부하러 왔었는데 물어도 말도 안하고 점심을 준대도 싫다고 하면서 먹지도 않고 얼마나 까칠하던지.

다행이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말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 달라고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영어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잘 알아 듣지도 못하는 한국 말로 드리는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딸과 함께 해 주셨고 또 복 주셔서 그 딸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당하고 어엿한 그리고 예쁘기까지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David 도 마찬가지 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저 아이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나 싶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버지와 떨어져 엄마와 단 둘이 미국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 힘들었었나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아버지가 채워 주워야 할 부분은 그대로 비워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때 말을 안해서 그렇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춘기가 되자 그동안 잘 다니던 교회도 만나가고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Jean 선생님의 인도하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제 마음과 같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인 이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 보시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 하실는지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쏟아 놓고 부어 주실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계시다가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쏟아 부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늘에 쏟아 놓으신 복을 하나도 놓이지 말고 평생 모두 받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니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당신의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 복을 쏟아 부어 주실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그들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 이런 큰 복을 내려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셨는지를 교훈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모두 받아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정말 복되고 값지고 멋있게 사십시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산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을지라도 나중에 복받아 번성하게 된 이후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다 생을 마쳤음을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몇 안되는, 초지일관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16 세의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조국 남 유다는 북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선택되어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 순종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남 유다에 비해 죄가 더 심했던 북 이스라엘을 BC 722 년에 앗수르의 손에 붙이셔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목격하고도 남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남 유다도 바벨론에 붙이셔서 BC 586 년 결국 멸망시키셨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3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첫번째 침략은 BC 605 년 유다 왕 여호야 김 3 년에 있었습니다.

이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왕족, 방백, 귀족, 장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 어린 다니엘도 같이 붙잡혀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도 빼앗겨 바벨론 신의 창고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침략은 1 차 포로 사건이 있던 8 년 후인 BC 597 년에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번째 침략은 2 차 포로 사건이 있던 지 11 년 후인 BC 586 년에 있었으며 이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유다는 멸망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God is my Judge) 또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God is Judge)란 뜻입니다.

다니엘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 3 절 말씀에 비추어 보아 아마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 1: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단 1:4)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당시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온 민족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썼는데 그 일환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 포로로 끌고 온 젊은 소년들 중에 가문 좋고 똑똑한 인재들을 발탁하여 특별 훈련을 시켰습니다.

삼년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며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게 하고 후대 민족 지도자가 될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유로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중 뽑혀 삼년 동안 왕궁에 살게 된 다니엘 앞에는 그가 이행해야 하는 서로 상충되는 두 명령이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입니다.

왕궁에 들어 오게 된 다니엘과 다른 소년들에게는 왕이 자신이 먹고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지정하여 제공하고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요?

8 절을 보시겠습니다.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면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음식과 포도주가 바벨론 신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음식 중에 율법에서 금한 짐승의 고기가 섞여 있다거나 고기의 피를 빼지 않고 요리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먹지 않는 것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바벨론 왕의 명령을 모두 지키면서 살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명령이 부딪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두 명령이 서로 부딪칠 경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것은 비단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만이 겪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순간마다 이러한 선택적인 딜레마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의 뜻을 정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절대 왕정 하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하고 모두는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좋게 보시고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 이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에 비해 초췌해진 상태로 왕 앞에 서면 어쩌나 환관장이 두려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자기들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감독에게 열흘 동안 자신들에게 채식과 물만 주면서 시험라고 제안합니다.

열흘 후면 얼굴에 변화가 나타날 텐데 그때 가서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여 보아 자기들의 모습이 수척하다면 처분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판단과 결정을 감독에게 위임함으로 그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열흘 후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독하는 자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만을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로 인하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뜻을 정해 행동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단 1: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주셨고 이에 더해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꿈의 징조를 깨달아 아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2. 왕의 모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단 1:18)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단 1: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단 1: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정한 기간이 지나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들이 다른 무리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이미 활약하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을 왕의 모사로 삼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 왕궁에서 후세 민족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택하여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출세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삼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기만 하면 정부의 요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음식 문제로 공연히 사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어렵게 왔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세 친구들과 더불어 뜻을 정하여 바벨론에 편안하게 안주하는 안락의 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길인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삼상 2:35)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잠 8: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요 14: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쾌락 지상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등등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세뇌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져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마비되어집니다.

아니 벌써 이미 그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

이러다가 우리 모두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도 다 헛되이 만들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들을 찾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돌아 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비록 그 길이 절망의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